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이 성당에서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불편함을 더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장애 그 자체보다 장애인을 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평범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본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교우를 찾아 나서고, 이들이 본당 내에서 불편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당이 어떤 점에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한지, 그 사정을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를 장애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식과 실천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책임지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08항; 간추린 사회교리 246항 참조)

서울대교구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성라파엘사랑결성당’과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에파타성당’이 있습니다. 에파타성당은 2019년에 자체 성전을 신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했으며 ‘준본당’에서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의 연대와 나눔의 과제를 이 두 본당에만 떠밀어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본당은 비장애인 신자들에게 장애인의 존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상징입니다. ‘성라파엘사랑결성당’이나 ‘에파타성당’까지 직접 갈 수 없는 수많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책임과 사랑의 의무는 여전히 모든 본당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각자의 소속 본당에서 불편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서, 교구의 모든 본당이 하나같이 제2, 제3의 성라파엘사랑결성당과 에파타성당들이 될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때마침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기자회견마다 수어 통역이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수어 통역 중계는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존재를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본당 미사가 중단되어 많은 신자가 가톨릭평화방송(cpb)의 매일 미사로 신앙의 갈증을 달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일미사 방송에도 수어 통역이 등장했습니다. 큰 성과입니다. 이왕이면 힘이 좀 더 들더라도 수어 통역 중계가 평일 미사로까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 아직도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직·간접적 차별에 대하여 우리의 무관심을 뉘우칩시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장애인도 “천부적이고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상응하는 온전한 인간 주체”(노동하는 인간 제22항)로서 존엄과 위대함을 드러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여야 한다.”(간추린사회교리 148항)는 교회의 가르침을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과 특별히 장애인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의 강복을 빕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디모테오 주교

유 경 춘